

박인로 가사의 창작방식과 그 의미

- ‘후믈며/후뭉며’의 활용을 중심으로 -

김성은*

- 차례 -

1. 들어가는 말
2. ‘후믈며/후뭉며’ 활용의 의미
 - 2.1. 전제를 바탕으로 한 실증성 강조
 - 2.2. 전제와의 비교를 통한 우위성 강조
 - 2.3. 전제와의 비교를 통한 당위성 강조
3. ‘후믈며/후뭉며’를 활용한 창작방식의 의미
 - 3.1. 공적 대상과 효용성 활용
 - 3.2. 사적 대상과 효용성 활용
4. 나오는 말

* 우송대학교 교수, truebank@wsu.ac.kr

[국문 초록]

박인로(1561-1642)는 열한 편의 가사작품을 창작하여 작품 수로만 보면 가히 조선 중기 최고의 가사작가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열한 편의 작품을 창작한 작가인 박인로의 가사 창작방식에 주목하고 인정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본고는 박인로의 가사 창작방식의 일면을 구명하기 위해 박인로의 가사작품 열한 편 중 아홉 편에서 쓰여 그 빈도가 높으며 작품의 중·후반부에서 오직 한 번씩 나타나는 ‘흐믓며/흐믓며’에 주목하였다. 박인로는 <사제곡>·<독락당>·<상사곡>에서와 같이 앞의 내용을 전제로 뒤 내용의 실증성을 강조하기 위해, <소유정가>·<영남가>·<노계가>에서와 같이 앞의 내용에 견주어 뒤의 내용이 우위임을 강조하기 위해, <선상탄>·<누항사>·<권주가>에서와 같이 앞의 내용을 전제로 하여 뒤의 내용에 당위성을 부여하기 위해 ‘흐믓며/흐믓며’를 활용했다. 이처럼 ‘흐믓며/흐믓며’의 활용은 주제를 보다 분명히 드러내기 위한 박인로의 창작방식이었다. 박인로는 이러한 창작방식을 활용함으로써 公的·私的 대상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좀 더 효과적으로 드러내고자 하였다.

이 연구 결과는, 박인로는 가사 창작의 역량을 지닌 작가였으며 그의 가사작품은 즉흥적 산물이 아니라 의도한 창작방식에 따른 결과물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그리고 박인로는 ‘명·청’자가 원하는 작품의 주제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이와 같은 창작방식을 활용하였다는 것도 알 수 있게 한다.

주제어 : 박인로, 가사, 창작방식, 흐믓며, 활용

1. 들어가는 말

박인로(1561-1642)는 열한 편의 가사작품을 창작하여 작품 수로만 보면 가히 조선 중기 최고의 가사작가라 할 수 있다. 박인로의 가사작품은 『蘆溪先生文集』에 실려 있는 작품.¹⁾ 『永陽歷贈』에 실려 있는 작품²⁾, 그리고 개별 발굴 작품³⁾의 형식으로 전한다.

작품의 수가 많은 것만큼 박인로의 가사작품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방면에서 이루어졌다. 하지만 열한 편의 작품을 창작한 작가인 박인로의 가사 창작방식에 주목하고 창작역량을 구명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덕이 있으면 반드시 말이 있으니 말은 덕의 符節이다. 왕왕 드러내어 시를 짓고 노래를 지은 것이 모두 後世의 법이 되었다.⁴⁾

박인로는 어린 열세 살에 <戴勝吟>⁵⁾을 지어 사람들을 놀라게 했으며, 그의 창작품은 ‘後世의 법’이 될 만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박

1) 여기에 해당하는 작품은 <태평사>·<선상탄>·<누항사>·<사제곡>·<독락당>·<영남가>·<노계가>이고, 본고에 사용한 원문과 해석은, ‘김창규, 『노계시평석』, 박이정, 2008’을 따른다.

2) 『永陽歷贈』에 수록된 작품은 <사제곡>·<누항사>·<상사곡>·<권주가>이고, 본고에 사용한 원문과 해석은 ‘김석배, 경오본 『노계가집』, 구미문화원, 2006’을 따른다.

3) 여기에 해당하는 작품은 1979년 김일근 교수에 의해 발굴된 <입암별곡>과 1980년 김문기 교수에 의해 발굴된 <소유정가> 두 작품이고, 본고에 사용한 원문과 해석은 ‘김창규, 앞의 책’을 따른다.

4) “有德必有言 言德之符也 往往發而爲詩爲歌者 皆可爲後世法” 『蘆溪先生文集』 卷之二 <蘆溪集跋, 鄭夏源>. 『蘆溪先生文集』의 해석은 ‘김문기, 『국역 노계집』, 역락, 1999.’ 인용. 이후의 『蘆溪先生文集』의 해석도 같으므로 각주를 생략함.

5) 午睡頻驚戴勝吟 자주 낮잠을 깨우는 뾰꾸기 소리
如何偏促野人心 어찌하여 야인의 마음을 재촉하는가?
啼彼洛陽華屋角 저 서늘의 화려한 집들 처마에서 울어
令人知有勸耕禽 발갈이 권하는 새 있음을 알게 하여라
『蘆溪先生文集』 卷之一 七言絕句 <戴勝吟>

인로는 창작을 ‘請’ 받아 다수의 가사작품을 창작한 작가였다.⁶⁾ 창작을 ‘請’한 이들과 박인로의 신분 차이는 있지만, 그들이 창작을 청한 것은 박인로의 창작역량을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어렸을 때부터 詩才가 있었던 점으로 보나 창작을 청 받은 작품이 많다는 것으로 보나 박인로는 가사를 창작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니고 있었다. 또한 그동안 알려진 바와 같이 박인로가 처했던 현실은 자신의 입지를 보완할 가사작품을 창작해야겠다는 동인으로 작용했음을 짐작하게 한다. 남긴 작품이 말해주듯이 실제로 박인로에게 있어 가사창작은 노년에도 놓지 못할 만큼 매우 의미 있고 절실한 작업이었다.

이에 본고는 박인로의 가사창작 방식을 살펴보는 방법의 하나로 ‘하물며/하물며’에 주목하기로 한다. ‘하물며/하물며’는 박인로의 가사작품 열한 편 중 <船上歎>·<莎堤曲>·<陋巷詞>·<獨樂堂>·<小有亭歌>·<嶺南歌>·<相思曲>·<勸酒歌>·<蘆溪歌> 아홉 편에서 쓰여 그 빈도가 높은 편이다. 또 이 아홉 작품의 중·후반부에서 오직 한 번씩 나타난다는 공통점도 있다.

‘하물며(하물며/하물며)’는 형태론적으로는 3음절의 토박이말인 부사로 분류된다.⁷⁾ 또한 ‘하물며(하물며/하물며)’는 문장과 문장,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연결하는 접속부사이다.⁸⁾ ‘하물며(하물며/하물며)’의 의미기능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앞의 것(일)을 전제로 뒤의 것(일)을 강조하는 기능을 한다’는 것이 연구서들에서 보이는 공통된 견해이다.⁹⁾

6) 박인로의 가사작품 열한 편 중에서 ‘命·代作’이라는 기록과 함께 전하는 작품은 <太平詞>·<莎堤曲>·<陋巷詞>·<相思曲>·<勸酒歌> 다섯 작품이다.

7) 서정수, 『한국어의 부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8) 나찬연, 『국어문법의 이해』, 제이앤씨, 2007.

9) ‘하물며’의 기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서들을 참고하였다.

조애숙, 「韓日語副詞 ‘まして’와 ‘하물며’의 대조연구」, 『일본문화학보』 59, 한국일

이러한 ‘하물며(하물며/하물며)’의 기능과 그것이 지닌 의미를 바탕으로 본고는 ‘하물며/하물며’가 쓰인 박인로 가사작품에서 ‘하물며/하물며’는 이전과 이후의 의미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하물며/하물며’를 활용하는 창작방식을 통해 박인로가 활용한 효과는 무엇인가를 살펴볼 것이다. 특히 ‘하물며/하물며’의 쓰임을 중심으로 『노계선생문집』본과 『영양역증』본을 비교 연구함으로써, 『노계선생문집』본에서 확인할 수 있는 타의에 의한 詞의 번개는 작품 전체의 의미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도 알아볼 것이다. 이는 모두 박인로의 가사 창작방식의 일면을 구명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하물며/하물며’의 활용과 의미구조

‘구조’에서 핵심적인 개념은 ‘관계’이다.¹⁰⁾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본고에서 주목하는 박인로의 가사 창작방식은 ‘하물며/하물며’를 중심으로 이전과 이후의 詞를 어떤 의미 관계로 배치하였는가, 그러한 관계는 작품 전체의 의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것이다.

‘하물며/하물며’는 ‘앞의 것(일)을 전제로 뒤의 것(일)을 강조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을 바탕으로 ‘하물며/하물며’가 나타나는 박인로의 아홉 작품을 살펴보기로 한다.

2.1. 전제를 바탕으로 한 실증성 강조

본문학회, 2013; 나찬연, 앞의 책; 서정수, 앞의 책; 김선영, 「현대 국어의 접속 부사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박지숙, 「국어 의문형 서법 부사 연구」, 동아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10) 김일렬, 『문학의 본질』, 새문사, 2006, 179면.

<사제곡>의 내용은 임금의 榮寵을 받던 화자가 벼슬을 그만두고 사제로 내려가 생활을 영위하며 終孝를 실천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목은 ‘사제곡’이지만 앞부분에서는 ‘사제’가 아닌 서울에서의 벼슬살이와 그것에서 물러나 기까지를 설명하였다.

어리고 拙혼몸에 榮寵이 已極하니
 鞠躬 盡悴하야 주거야 말려너겨
 夙夜 匪懈하야 밥을닛고 思度혼돌
 군술의 현블로 日月明을 도올런가
 尸位 伴食을 멧히나 디내연고
 늙고 病이드러 骸骨을 빌니실시
 漢水 東다히로 訪水 尋山하야
 龍津江 디내올나 莎堤안 도라드니

‘榮寵이 已極’했다는 말에서 화자는 높은 벼슬에 있었던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鞠躬 盡悴’, ‘夙夜 匪懈’라는 표현에서는 매우 열심히 관직을 수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화자는 임금께 사직을 청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간청을 하고 벼슬에서 물러났다(‘骸骨을 빌니실시’)고 하였다.

鶴髮을 뵈시고 終孝를 하려너겨
 爰居 爰處하니 此江山之 님재로다
 三公不換 此江山은 엇씨닐은 말숨인고
 나눈 말업시 수이도 밧고완자

恒産도 보려 하니 히옴업시 이노매라¹¹⁾

화자가 벼슬을 그만두고 ‘사제’로 내려온 이유는 ‘鶴髮을 뒹치고 終孝’를 다하려는 데 있었다. ‘히옴며’ 뒷부분에서는 ‘사제’에서 실천하는 화자의 실증적 삶을 중점적으로 드러내었다.

히옴며

南山 노린그티 五穀을 7초심거
먹고 못나마도 굶찌나 아니히면
내집의 내밥이 그마시 엇찌히뇨

굿독 不才에 病히나 디터가고
萱堂 老親은 八旬이 거의거든
湯藥을 굶치며 定省을 뷔올런가

느긋이 즐기는 ‘사제’에서의 흥치를 말하던 것에서 나아가 ‘五穀’을 갖추어 심어 먹을거리를 마련한다고 하였다. ‘八旬’에 가까운 ‘萱堂 老親’께 ‘湯藥’을 드리며 아침저녁으로 살펴(‘定省’) 모시며 살아간다고 하였다. 이로써 <사제곡>의 의미는,三公을 역임하던 화자가 ‘사제’로 내려온 것이 유가에서 이상적으로 여기는 강호지향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스스로 먹을거리를 장만하여 ‘萱堂 老親’께 효를 다하려는 실질적인 이유가 컸다는 것으로 완성된다.

<독락당>의 내용을 담박하게 요약하면 ‘독락당’이라는 공간을 매개로 이언적을 존송하는 박인로의 마음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11) 밑줄 친 부분은 『영양역증』본에는 있으나 『노계선생문집』본에는 없는 구절이며, 『영양역증』본은 ‘김석배, 앞의 책’ 원문을 따른다. 이후도 같으므로 각주를 생략한다.

‘흐믄며’ 앞부분은 화자 즉 박인로가 ‘독락당’을 찾아 이언적의 자취를 느끼며 그의 학덕을 숭상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紫玉山 名勝地에 獨樂堂이 蕭灑함을
들런디 오래로디

顏曾이 在左 호고 游夏는 在右 호듯
尙友 千古 호며 吟詠을 일을삼아
閒中 靜裏에 潛思 自得 호야
혼자즐겨 호시덧다

‘흐믄며’ 뒷부분에서는 이언적이 실천한 유자로서의 삶을 말하였다. 이언적의 학덕과 발자취를 되새기는 것에서 나아가 유자로서 행한 이언적의 실제 행적을 말한 것이다.

흐믄며
孝悌를 본을삼고 忠誠을 뱉허니여
聖朝의 나아들러 稷契의 몸이되야
唐虞 盛時를 일일가 바라더가
時運이 不幸 호야 忠賢을 遠斥 호니

七年 長沙이 不見 天日 호고
閉門 深省 호샤 道德만 닷그시니
邪不 勝正이라 公論이 절로이러
尊崇 道德을 사람마다 흘줄아라
江界는 謫所로디 遺化를 못니이저

窮巷 絕域의 祠宇 좇차 서위시니
 士林 趨仰이야 더욱닐러 무엇허리
 紫玉 泉石우희 書院을 디어두고
 濟濟 靑襟이 絃誦聲을 이어시니
 濂洛 群賢이 이싸희 뵈왔는닷

(이언적은) 부모에 대한 효도와 형제간의 우애를 근본으로 삼았으며, 조정으로 나아가 벼슬을 맡아 나라를 도우려했으나 ‘時運’을 잘못 만나 ‘遠斥’ 당했다고 하였다. 을사사화로 인해 이언적이 강제로 귀양 가게 되었던 일을 말한 것이다. 실제로 이언적은 ‘江界’에 유배되어서도 도학에 전념했고 그 ‘遺化’로 말미암아 ‘祠宇(景賢祠)’를 세우게 되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바다. 또 紫玉山 아래 ‘書院(독락당)’을 세워 훌륭한 선비들을 모아 강학했던 일도 이언적이 실제로 행한 일이다.

박인로는 <독락당>의 앞부분에서는 ‘독락당’을 매개로 이언적의 유자적 삶을 말하고, ‘흐믓며’ 뒷부분에서는 이언적이 실제로 행한 일을 말하였다. 이러한 ‘흐믓며’의 활용으로, 이언적은 그 학덕이 높아 기릴만한 인물임은 물론, 어려움 속에서도 유가적 실천에 매진한 인물이라는 점이 강조된다.

<상사곡>에서 ‘흐믓며’ 앞부분의 내용은 화자가 겪고 있는 이별 상황과 그에 따른 고통을 말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陽臺에 구름비눈 흘러던디 몇힌게오
 半鏡이 보미여 썩소귀 무쳤는닷
 靑鳥도 아니오고 白鴈도 그쳐시니
 消息도 못듯거든 님의양주 보로손가

먹던밥 덜먹기고 자던잠 덜자인다
슬못진 얼굴이 愁色계워 거머가니
醉_노덧 어리_노덧
清心元 蘇合丸 마셔도 效驗업다
膏肓의 疔病을 扁鵲이라 고틸소냐

나누어 가진 ‘半鏡’이 ‘씩(먼지)’에 묻힐 만큼 화자와 님의 이별은 오래 지속되었다는 것을 말하였다. 님을 계속 그리워하고 있는 화자의 고통도 말하였다. 밥도 먹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하여 ‘扁鵲’이라 해도 고치지 못할 만큼 마음의 병(‘膏肓의 疔病’)이 깊어졌다는 것이다.

흐물며
風清 月白 ㅎ고 三更이 깃펴갈제
東窓을 더디닷고 외로이 안자시니
님의_노치 비천돌이 혼비초로 불가시니
반기는 眞情은 님을본덧 ㅎ다마논

山水 7_조곤골의 草幕을 주피혀고
용티못흔 生涯를 有餘코져 부랄소냐
두서이렁 돌밭툭 같거니 시므거니
五穀이 蕃熟새든
追遠 奉祭祀이나 誠敬을 닐원後의
이시면 밥이오 업스면 粥을먹고

덜뵈던 정을 슬미도록 좃니리라

‘후물며’ 뒷부분에는 님과의 매개체로 ‘달’이 등장한다. ‘달’을 두고 저 님(더님)이라 하여 ‘달’을 두고 님을 본 것처럼 인식한다는 것을 드러내었다. 또한 ‘후물며’ 뒷부분에서는 화자의 실제 삶이 어떠한지와 이별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드러내었다. ‘山水’를 갖춘 곳에 ‘草幕’을 지어 살고 있으며 발을 갈아 곡식을 길러 먹을 양식을 마련하여 부모에게는 공경을 다하고(誠敬) 조상의 제사를 받들며(追遠 奉祭祀) 살아갈 것이라 하였다. 이별에 대해서도 ‘싫고 미워질 때까지(슬피도록) 정’을 좇으며 살겠다는 다짐으로 대신 하였다.

이처럼 ‘후물며’를 전후로 <상사곡>의 화자는 오랜 이별로 인해 몹시 힘들어하면서도, 실제로는 일상을 영위하면서 ‘님’에 대한 ‘정’을 끝내 지켜간다는 의미로 완성되었다.

2.2. 전제와의 비교를 통한 우위성 강조

<소유정가>는 박인로가 ‘소유정’과 그 주변의 승경을 경험한 일을 담은 작품이다.

琴湖江 누린물이千里밖의 구비지어
 之玄 乙字로白沙의 빛씨흘러
 千丈 絶壁下的 萬族淵藪 되얏거든
 琵琶山 혼활기 東다히로 버더누려
 가던籠이 머무논듯 江頭에 두렛겨늘
 小有亭 두세間을 바회지켜 여러내니

후물며

八公山 건너보니 노프락 누즈락

峭壁 鑽峯이 날위호야 버려논듯
 넓거든 기지마나 길거든 넓지마나
 白練 萬丈을 굵긋치 채펄논듯
 富春 形勝인돌 이江山의 믿출런가
 山回 水曲이 견홀디 뇌야업다
 各別한 仙界라 인간이 아닌듯짜

‘소유정’의 지리적 환경을 말하기 위해 앞서 금호강과 비슬산을 거론한 것에 더해 팔공산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도 말하였다. 금호강, 비슬산, 팔공산은 대구를 대표하는 자연경관이므로 ‘소유정’은 대구 중에서도 가장 으뜸 장소에 세워졌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호몰며’를 활용하여 ‘소유정’이 승경에 승경을 더한 곳에 위치하였음을 드러낸 <소유정가>는 ‘소유정’을 찾은 사대부들이 한결같이 칭송한 ‘소유정’의 경관이 정말로 승경임을 강조하기 위한 박인로의 창작방식으로 볼 수 있다.

<영남가>에서 영남지방의 백성들은 임진왜란에서부터 시작된 고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나타난다.

嶺南 千里外에 壬辰變後 나쁜百姓
 賊路 初頭에 어니世業 가질넌고
 遺墟 蕪沒흔디 草屋數間 디어두고
 陳荒 薄田을 가다얼미 갈리런고
 굿독 多事[○] · ㄴ디 賦役이나 적을넌가
 朝夕도 못내이어 飢寒에 늘거신들

巡相 閣下를 特別이 보내시니

嶺南 殘民이 再生秋 아닌은가

그러한 영남에 ‘巡相 閣下’가 부임하니 겨우 목숨만 부지한 영남 백성들은 다시 살아나는 듯하다(再生秋)고 하였다. 임진란이 일어났었다(壬辰變), 적군이 쳐들어온 첫머리였다(賊路 初頭), 전란 후에 찾아온 터전은 잡풀 속에 묻혀 있다(遺墟 蕪沒), 전란 동안 오래 묵혀 밭은 거칠어졌다(陳荒 薄田), 부역이 많다(賦役) 등의 구절은 전란과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한다는 점을 드러낸 것이다.

承流 宣化 亨야 養民 홀 뜻을두사
七十州 一家삼아 父母心을 가지시고
어미일홀 모든赤子 如保恩을 닦히시니
大旱애 百穀이 時雨를 만나논닷
涸轍枯魚 | 김폰소에 잠겨논듯

‘巡相 閣下’가 부임한 이후의 변화상을 큰 가뭄(大旱)에 곡식이 때 맞추어 오는 단비(時雨)를 맞는 듯하다고 하였고 수레바퀴 자국에 끈 물에 말라 죽어가는 고기(涸轍枯魚)가 깊은 물(김폰소)에 잠기는 듯하다고 하였다. 이 정도의 표현이면 현실의 궁박함이 해결되었다는 의미로 전달되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후물며’ 뒷부분에서는 이에 더해 ‘巡相 閣下’가 행한 정치에 이념적 의미를 강화하는 내용을 덧붙였다.

후물며
氷玉 精神에 霽月胸襟 품으시고

盡心 國事 ㅎ야 忠誠을 다 ㅎ시며
 學校 明倫을 政事 中에 大本 삼아

엇거제 石壕村이 武陵桃源 되엿는가
 竹院 松牕애 絃誦聲을 이어거늘
 綠楊 亭畔애 擊壤歌을 불러니니
 無懷氏적 사람인가 葛天氏씨 百姓인가
 唐虞 盛時을 오늘다시 본듯 ㅎ다

相國 風度를 司馬溫公 畫像 갓치
 無限無限 그러니아
 嶺南 千萬家애 壁上의 부져두고
 中心에
 그리온 적이어든 보옵고자 ㅎ노라

그러한 선정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巡相 閣下’가 ‘氷玉’과 같은 정신과 ‘胸襟洒落¹²⁾’한 인품을 지니고 진심으로 ‘國事(영남 지방의 일)’를 살폈고 ‘明倫’을 큰 본(‘大本’)으로 삼아 행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巡相 閣下’의 선정으로 달라진 영남에 대한 표현도 ‘ㅎ믈며’ 앞부분에서 곡식과 물고기에 비유하여 현실적인 상황을 떠올리게 한 것에 더해, 뒷부분에서는 ‘石壕村’ 같았던 영남이 ‘武陵桃源’ 같이 달라졌다고 표현하였다. 당나라 杜甫의 <石壕吏>를 인용한 ‘石壕村’은 학정과 징발에 고통받는 마을을 이르는 것이어서 고난에 처한 백성의 현실을 떠올리게 하지만, ‘武陵桃源’은 현실이 아닌 이상세계를 상징한다. 대나무와 소나무로 둘러쳐진 집에서 거문고 소리가 이어진다는 것도 ‘巡

12) ‘비 갠 날의 달 같은 가슴 속 회포’

相閣下’ 부임 이전의 영남 실상을 생각한다면 현실성을 넘어선 이야기이다. <영남가>에서 ‘巡相閣下’로 표현된 인물이 실제로 재임한 기간은 1년 남짓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¹³⁾ ‘擊壤歌’, ‘無懷氏’, ‘葛天氏’, ‘唐虞盛時’ 역시 모두 이상적인 태평성대를 상징하는 단어들로서 현실의 궁박함이 해결된 차원보다는 훨씬 나아간 표현이다. 게다가 마지막 부분에서는 ‘相國(巡相閣下)’의 모습(‘風度’)을 ‘司馬溫公(司馬光)’의 모습과 같이 그려 붙여두고 보자고 하였다.

1년 남짓 선정을 베푼 ‘巡相閣下’를 司馬光 같이 그려두자고까지 한 것은 ‘巡相閣下’가 행한 정치를 司馬光의 그것과 같은 의미를 부여해야 했기 때문이다. ‘巡相閣下’의 선정을 최대한 부각하여 표현하려는 것이 박인로가 <영남가>를 창작한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후물며’를 활용함으로써 이런 창작 목적에 더욱 부합하는 의미로 완성될 수 있었다.

<노계가>의 서두에서 화자는 ‘蘆溪(谷)’와 같은 곳에서 살아가는 일이 평생동안 지냈던 뜻임을 말하였다.

白首에 訪水尋山 太晚 혼줄 알건마는
平生 素志를 뵈고야 말라너겨
赤鼠 三春에 春服을 새로넉고
竹杖 芒鞋로 蘆溪 汲흔골이
헝허마참 차주오니
第一 江山이 님지업시 부러누다

13) 이종문은 <영남가>의 찬양 대상이 1634년 7월부터 1635년 6월 까지 경상감사로 재임한 李基祚(1595-1653)라고 하였다. ‘이종문, 『노계 <영남가>의 찬양 대상 인물에 대한 고찰』, 『어문논집』 59, 민족어문학회, 2009, 287-307면’. 李基祚의 재임 기간은 <영남가>가의 창작 시기와 일치하고, 경상감사를 맡았을 때 선정을 베풀었다고 전해지며, 무엇보다 박인로와 가까이 지내던 이덕형의 孫壻이자 이덕형의 장남 李如圭의 사위여서, <영남가>의 찬양 대상은 李基祚라는 논의가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李如圭는 박인로의 <상사곡> 창작을 숭한 인물이기도 하다.

躑躅 良久타가 夕陽이 거원적의
 陟彼 高岡 ㅎ야 四隅로 도라보니
 山脉 밋친아리 藏風 向陽 ㅎ디
 靑蘿 ㄹ 허허드러 數椽 蝸室을
 背山 臨流 ㅎ야 五柳邊에 디어두고

入山 當年에 隱君子 되얏는가
 千古 芳名을 이 ㅎ몸애 傳토고야

‘第一 江山’과 같은 ‘蘆溪(谷)’을 선택하여 ‘背山 臨流’ 즉 풍수까지 고려하여 집(蝸室)과 정자(草草亭)를 ‘지었다고 하였다. 또한 ‘入山 當年’에 ‘隱君子’가 되었고 먼 후세까지 이어질 꽃다운 이름(‘千古 芳名’)을 ‘이 한 몸’으로 전하게 되었다고 自得感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처럼 화자는 자신의 바람을 실천할 수 있을 장소로 ‘蘆溪(谷)’을 선택하였지만, 막상 집을 지어 남은 생을 살아갈 장소인지에 대해 확신하는 데까지는 망설임이(躑躅 良久타가 夕陽이 거원적의) 있었다는 것도 드러내었다.

‘蘆溪(谷)’과 화자가 완전히 일체가 되는 경지는 ‘ㅎ믈며’ 뒷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ㅎ믈며
 明時에 부린몸이 ㅎ을닐이 아조업서

春日이 채긴제 낙디를 비기쥐고
 葛巾 布衣로 釣臺에 건너오니

山雨는 잠깐개고 大陽이 쬐오논디
 물근바람 더더오니 鏡面이 더욱발다
 김흔돌이 다보이니 괴기數를 알리로다
 괴기도 나치이거 놀닐줄 모르거든
 차마엇디 낙글넌고

良辰 佳景을 내혼자 거느리고

봄날 ‘葛巾 布衣’로 나간 낚시터(‘釣臺’)에 대한 표현은 화자와 ‘蘆溪(谷)’의 자연이 일치되었음을 보여준다. 비(‘山雨’), 맑은 물(‘鏡面’) 아래 흰히 비치는 검은 돌(‘김흔돌’) 등의 자연물에서 깊은 감회를 느끼고 특히 물고기와 낚이 익다(‘괴기도 나치이거’)는 표현은 화자가 ‘蘆溪(谷)’의 자연과 완전히 일치되는 경지에 이르렀음을 알게 한다. ‘나 혼자 거 느렸다’는 표현은 그 장소를 가졌다라는 의미를 넘어 그곳의 자연물들과 화자가 물아일체의 경지에 이르렀음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桃花는 紅雨되야 취면에 쫓리논디
 苔磯 너븐돌애 놓히베고 누어시니
 無懷氏적 사름인가 葛天氏씨 百姓인가
 羲皇 盛時를 다시본가 너기로라
 이힘이 뉘힘고 聖恩이 아니신가
 江湖애 물너신들
 憂君 一念이야 어니刻애 이줄넌고

술에 취하여 복숭아 꽃잎이 비처럼 흩뿌리는 바위에 누워있으니 자신이 ‘無懷氏, 葛天氏, 伏羲氏(羲皇)’와 같은 태평성대를 사는 사람

인 듯 느껴진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강호은자이면 갖추어야 할 미덕인 ‘聖恩’과 ‘憂君 一念’도 말하였다. ‘平生 素志’였던 강호에서의 삶을 실현한 화자가 그 自得의 완성으로서 되새기는 ‘聖恩’과 ‘憂君 一念’인 것이다.

이처럼 <노계가>에서 앞부분의 ‘蘆溪(谷)’을 선택한 화자의 자득감을 먼저 내세우고, ‘흐믓며’ 뒷부분에서는 나아가 ‘蘆溪(谷)’의 자연물과 화자의 물아일치를 드러내었다. 박인로가 많은 일을 겪고 난 노년(<노계곡> 창작 76세)에 은거하던 ‘蘆溪(谷)’에서의 삶을 유자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으로 드러낸 것이다.

2.3. 전제와의 비교를 통한 당위성 강조

<선상탄>의 앞부분은 전란이 재발할까 걱정하는 화자의 불안한 마음이 무겁게 나타나 있다.

乙巳 三夏에 鎭東營 누려오니
關防 重地에 病이 깊다 안자실라
一長劍 비기치고 兵船에 구테올나
勵氣 曠目 ㅎ야 對馬島을 구어보니
벼람조친 黃雲은 遠近에 사혀있고
아득흔 滄波는 긴하늘과 혼빛칠쇠

왜적이 다시 쳐들어올지 몰라 눈을 부릅뜨고 ‘對馬島’를 굽어보니 불길한 전운의 징조인 듯 ‘黃雲’은 쌓여있다고 하였다. ‘鎭東營’은 비록 변방이기는 하나 왜적이 맨 처음으로 쳐들어와 나라 전체에 큰 해를 입혔던 곳이니만큼, 전란이 재발한다면 반드시 지켜내어야 할 요새

(‘重地’)로 인식되는 곳이다.

吾東方 文物이 漢唐宋에 디라마논
 國運이 不幸하야
 海醜 兇謀에 萬古羞을 안고이서

우리나라(‘吾東方’)의 문화가 漢·唐·宋에 지지 않을 만큼 발달했지만 불운한 탓이었는지 왜적의 흉모(海醜 兇謀)에 휘말려 오랫동안 씻을 수 없을 수치스러움을 안게 되었다고 하였다.

하지만 화자는 ‘흐믄며’ 뒷부분에서 돌연 태도를 바꾸어 왜적을 섬멸해야만 한다는 각오를 다진다.

鼠竊 狗偷을 저그나 저흠소냐
 飛船에 돌려드러 先鋒을 거치면
 九十月 霜風에 落葉가치 헤치리라
 七縱 七擒을 우린들 못홀것가

왜적(鼠竊 狗偷)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며 다시 쳐들어오면 왜적의 배가 아무리 빠르다 해도 달려들어 섬멸할 것이라는 각오를 말하였다. 제갈공명과 같은 兵法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선상탄>의 화자는 앞부분에서 ‘舟師’로 ‘鎭東營’에 부임한 화자가 전란 재발의 불안함을 떨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었지만 ‘흐믄며’ 뒷부분에서는 태도를 바꾸어 戰意를 강하게 드러냄으로써 무관으로서 보여야 할 당위성을 강조하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다소 급작스럽기는 하지만 이러한 의미 변화는 ‘흐믄며’의 활용으로 가능할 수 있었다.

<누항사>는 『노계선생문집』과 『영양역증』에 모두 실려 있으나 두 본 간 詞의 차이가 크다. 『영양역증』본 <누항사>에는 ‘후몰며’가 있으나 『노계선생문집』본에는 앞뒤 구절들과 함께 ‘후몰며’도 빠져있다.

<누항사>의 앞부분에서 화자는 ‘자신이 가난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데 주력한다.

陋巷 김픈곳의 草幕을 주피혀고
 風朝 雨夕의 서근답피 서피되야
 닳흠밥 서흠粥에 烟氣도 하도할샤
 (서흠밥 닳흠粥에 烟氣도 하도할샤- 『노계선생문집』)
얼머만히 바든밥의 縣鶉 稚子들은
將碁버덧 쭈미덧 나아오니
人情 天理에 춤마혼자 머글넌가
설더인 熟冷애 빈비소길 쏘이로다

어론털 덜도든 늘근쥐논 貪多務得 호야
恣意 揚揚호니 白日아래 強盜로다
아야라 어든거술 다狡穴에 앓겨두고

끼니도 제대로 못 챙겨먹을 만큼 가난한 형편에 자식들이 많은 화자는 오랜만에 받은 밥을 배고파하는 자식들에게 내어주고 만다. 화자가 전쟁에 참여하는 동안 가세를 돌보지 못한 탓에 가난이 심해진 데다가 위정자(‘늘근 쥐’)의 탐학(‘貪多務得’)은 화자의 고난을 더욱 가중시킨다고 하였다.

그런데 밑줄 친 구절이 배제된 『노계선생문집』본으로만 보면 화자가 처한 가난은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난다. 오랜만에 받은 밥을

배고파하는 자식들에게 내어주고 만다는 부분과 화자의 고난을 가중시키는 위정자(늘근 쥐)의 탐학(貪多務得) '窮苦之狀'을 고발하는 구절이 없기 때문이다.

두 본 간의 이런 차이는 뒤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술고기 이시면 권당벗도 하련마논

두주먹 뷔게쥐고 世態업슨 말숨애

양주 하나 못괴오니

허루아적 블릴쇼도 못비러 마랏거든

허물며

東郭 礪間의 醉홀뜨들 가질소나

春耕도 거의거다 후리터 더더두자

江湖 혼숨을 꾸언디도 오라더니

蘆花 기픈고대 明月淸風 버디되야

넘재업슨 風月 江山의 절로절로 늘그리라

貧而 無怨을 어렵다 허건마논

내사리 이러호디 셔론뜨든 업노왜라

簞食 瓢飲을 이도분히 너기노라

소를 빌려서라도 농사를 지어보려 했지만 소를 빌리지 못하여 농사를 포기해야하는 과정은 비슷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영양역중』본에는 소를 빌리지 못하여 농사를 포기해야 하는 이유가 자신이 술과 고기(술고기)를 마련할 수 없기 때문으로 인식한다는 것이 드러나 있다.

이처럼 가난하고 고초 한 인생임을 한탄하던 앞부분과는 달리, ‘흐물며’ 뒷부분에서는 ‘明月淸風’을 벗 삼아 ‘風月江山’을 즐기며 가난에 연연해하지 않겠다(‘貧而無怨’)고 하였다.

소를 빌리지 못한 탓에 가난을 벗어나려는 생각을 포기한 것이든 인식을 전환하여 안빈낙도를 받아들인 것이든 간에, ‘흐물며’를 기준으로 가난을 한탄하는 것에서 전환하여 가난을 받아들이며 그것에 연연해하지 않는 내용으로 달라진다.

‘흐물며’ 뒷부분에서 보여주는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누항사>의 궁극적 지향점은 화자가 처한 ‘가난한 현실’을 드러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안빈낙도’에 뜻을 두고 현실에 연연해하지 않는 유자적 당위성을 강조하게 만든다. 그리고 이러한 창작 의도는 『영양역증』본 <누항사>에서 더욱 선명하게 나타난다.

<권주가>는 서두 부분과 말미 부분이 의미 대응을 이루며 그 가운데 본사는 ‘권주 분위기 조성→권주’ 패턴이 두 번 반복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¹⁴⁾

高堂 明鏡의 悲白髮 아니본가
 아춤의 검던머리 나죄논 희더괴야
 혼적 흰후의 다시검어 보로손가
 늘근사름 更少年이 千萬古에 업썸마논
 썸?툰 人世을 ?업시 살가너겨
 살줄만 알고 주글줄 모르더라 (첫 번째 권주 분위기-필자)

生前 酒一盃 괴아니 관겨혼가

14) 김성은, 「노계 <권주가>에 나타나는 특성과 의미」, 『한국시가연구』 28, 한국시가학회, 2010, 참고.

이혼궂 아니면 이시롭 어이허리 (첫 번째 권주-필자)

첫 번째 패턴에서는 한번 흰 머리는 다시 검어질 수 없으며(‘혼적 흰후의 다시검어 보로손가’), 한 번 늙어지면 다시 소년이 될 수 없다는 것(‘늘근사롭 更少年이 千萬古애 업썸마논’) 을 이유로 들었다. 꿈 같이 금방 흘러가는 것이 인간의 한세상이니 지금처럼 살아 있을 때 술 마시자고 하였으며, 술로써 세상 시름을 잊자고 하였다.

‘호물며

靑春 日將暮애 桃花이 亂落호야

醉眼의 아득호니

구름업손 불근비 半空애 쓰리논덧

景致 奇觀이 견홀디 뇌야업니

이?튼 花時애 아니놀고 엇씨허리

一朝애 죽거가면 어니날애 다시놀며

深山 긴솔아래

어니버디 次자가 쏘혼궂 勸홀련고

이런일 생각거든 괴아니 늦새온가(두 번째 권주 분위기-필자)

이궂 자브시고 이말슴 고타듯소

三萬 六千日의 但願 長醉호고

不願醒호사이다 (두 번째 권주-필자)

‘호물며’ 이후의 두 번째 패턴에서는 서정적 분위기를 살림으로써 권주의 당위성을 더욱 강화하였다. ‘靑春 日將暮’를 ‘봄날 해 저물녘’

이라 해석하든 ‘청춘이 다 저물어간다’고 해석하든, 그러한 상황에 복숭아 꽃잎은 마치 붉은 비처럼 공중에 아득히 흩날린다고 하였다. 애상적이고도 황홀한 권주의 장이 마련된 것이다. 화자는 이에 더해 죽고 난 뒤의 상황을 상기시켰다. 한 번 죽으면 다시 놀 수 없으며, 우리가 죽어 묻힌 깊은 산 소나무 아래(深山 긴솔아래)까지는 그 어떤 벗도 찾아와 술을 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죽고 난 뒤에 후회해봤자(괴아니 늦새온가)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며 그것의 허망함을 환기하였다. 살아서 술 마실 공간의 애상적이고도 황홀한 이미지와 죽고 난 뒤의 어둡고 무거운 공간의 이미지를 대조하여 이어지는 권주(‘이췌 자브시고’)의 당위성을 더욱 강화하였다.

살펴본 바와 같이 <권주가>에서는 권주의 이유를 점차적으로 극대화 하여 화자가 원하는 권주의 당위성을 점차적으로 높였으며 이를 위해 ‘후물며’의 의미를 활용하였다.

3. ‘후물며/후물며’를 활용한 창작방식의 의미

가사는 전언에 초점을 두는 문학이다.¹⁵⁾ 또한 가사는 작가가 세계와 다른 개인들을 향하여 자기의 목소리를 드러낼 수 있는 문학이다. 이는 가사가 광범위하고도 지속적으로 창작될 수 있는 이유가 되었다.¹⁶⁾ 즉 가사는 작가가 상정한 대상을 향해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충분히 담을 수 있는 문학의 한 형태이다.

박인로 역시 상정한 대상을 향해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충분히 담기 위해 가사라는 형식으로 창작한 것이며, 창작을 청 받은 경우에도

15) 이주영, 「강호가사에 나타난 逍遙의 양상과 교육적 의의-강호시조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고전문학과교육』23(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2), 88면.

16) 조세형, 『가사의 언어와 의식』(보고사, 2009), 188면.

청한 이의 의도를 최대한 반영하려 했을 것이다. 알아본 바와 같이 박인로는 가사작품에서 상정한 대상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바나 청한 이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흐믓며/흐물며’를 적절히 활용하였다. 이에 3장에서는 이러한 창작방식을 통해 이루어진 의미는 어떠한 효용성으로 이어지는지를 알아보기로 한다.

3.1. 공적 대상과 효용성 활용

<선상탄>은 박인로가 무관직에 있을 때 쓴 작품으로 알려졌다.¹⁷⁾ 따라서 전란에 참가했고 조라포 등 왜에 인접한 진영에서 무관을 역임한 박인로의 실제 경험과 감정이 드러나 있다. 하지만 무과를 거친 관료로서 전란 재발의 불안을 극복할 수 있을 만큼 용맹과 병법으로 무장되어 있음을 보여야 했다. 그런 이유에서 전란을 경험한 무관으로서의 내면적 갈등을 길게 드러내다가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을 표명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고, 이러한 의지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흐믓며’를 적절히 활용하였다.

<사제곡>은 박인로가 경기도 광주 용진에 머물던 이덕형을 찾아 종유하며 지은 작품이다. 이덕형은 홍문관 대제학, 좌의정, 영의정 등을 지낼 만큼 그 명성을 떨쳤고 임란 당시 왜적과의 협상이나 명나라 장수들의 접반사를 도맡아 한 인물이었다. 하지만 당시 심화된 봉당 정치로 인해 여러 차례 탄핵을 받았고 모친상을 당하거나 노부를 봉양하고자 올린 여러 차례의 사직 상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¹⁸⁾ 그러

17) 박인로는 1599년 무과에 급제하였고 1612년(광해군 4년 11월 13일) 파직되기까지 守門將, 宣傳官, 助羅浦 萬戶 등의 무관직을 역임했다.

18) 이덕형이 파직으로 물러나기 전에도 흠아버지의 부양을 위해 사직하고자 한다는 상소를 여러 차례 올렸음은 그의 문집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只以老父臨年爲畢命松楸之計 棲遲七載 危病歲添 朝不期夕 強其衰憊 棄其便適 扶曳入城 悞性違志 以失其調攝 則有人子極難處者 其間猥瑣之言 又何能盡瀆於天聽哉 往年 臣父獲霑聖上不世之優渥 擢授堂上重秩 感惕拜命 半月臥病而歸……以彼

므로 이덕형의 내면에는 ‘사제’에서의 생활이 단순한 강호에서의 은거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일이었고 이덕형을 중유하던 박인로는 그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이런 이덕형의 입장을 반영하여 박인로는 <사제곡>에서 ‘한가로운 강호에 물러나 수양하는 즐거움을 누리고 세상사의 근심을 잊고자’하는 당대 사대부들의 일반적인 공간지향을 담으면서도,¹⁹⁾ 먹을거리를 손수 장만하고 부모에게 효를 실현하는 이덕형의 실제 생활에 더 의미를 두는 내용으로 완성한 것이다.

<독락당>은 박인로가 1619년 ‘독락당’을 찾은 경험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독락당’은 理說을 정립하여 이황(1501-1570)에게도 커다란 영향을 준 영남학파의 대표적인 이언적(1491-1553)의 공간이다. 이언적은 ‘독락당’에서 학문과 강학에 주력하였으며 강계에 유배되어서도 많은 저술을 남겼다. 특히 이언적 사후에 건립된 ‘옥산서원’은 이언적이 1610년(광해군 2) 동방오현으로 문묘에 배향된 이후, 경주를 비롯한 경주 유학의 대표적 장소로 유림들의 교육과 사회적 교유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 도산서원과 함께 영남의 대표적인 서원으로 이름난 유자들의 방문이 끊이지 않는 곳이었다.

무관 출신이며 늦은 나이에 성리학에 입문한 박인로는 ‘독락당’과 ‘옥산서원’을 방문하는 것은 물론 자신이 지닌 재능을 활용하여 가사 작품으로 남김으로써, 자신도 그런 공간을 공유하는 영남 문인의 일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자 하였다.

<소유정가>의 ‘소유정’을 처음 건립한 채응린은 일찍이 위기지학에 뜻을 두어 성리학이 깊었던 인물로 溪東 全慶昌(1532~1585), 槐軒 郭再謙(1547~1615), 樂齋 徐思遠(1550~1615) 등과 교유한 인물로 이름

則違命。臣之尸位有何補於國..... 噫 君恩猶可以再酬父 年不可以多得 相依爲命 更有幾時”『漢陰先生文稿』卷之七 疏筭 <乞致仕歸養筭>[第二筭]

19) “仁老善歌 遂令作莎堤曲 極敍投閒致養之樂 江湖退憂之情以述懷焉”『漢陰先生文稿』附錄 卷一 <年譜> 下

난 영남 문인 중 한 사람이었다. 채응린은 퇴계의 학문을 따른 인물이며 ‘소유정’을 지어 강학에 주력했다. 이러한 채응린이 처음 건립한 ‘소유정’은 멀리까지 이름이 알려진 누정이었다.²⁰⁾ 많은 이들이 ‘소유정’을 찾았고 그 경관을 『小有亭題詠』의 차운시로 남겼다. 『小有亭題詠』의 차운시를 남긴 이들은 고위 관료이거나 영남 사족을 대표하는 인물들이다.²¹⁾ 박인로도 ‘소유정’을 방문하였지만 『小有亭題詠』에 차운시를 남길 만큼의 위치는 아니었기에 가사작품으로 창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제영시로 이름을 올리지는 못했지만, 가사작품으로 ‘소유정’의 승경을 강조함으로써 자신도 ‘소유정’을 찾은 관료나 영남의 이름난 유학자들과 같은 누정을 경험했다는 점을 드러낸 것이다.

<영남가>의 창작 시기인 1634-1635년경은 임진란 후 통치조직과 지배층에 대한 피지배층의 불신감이 팽배했던 시기이다. 특히 민과 직접적인 지배 관계에 있었던 지방수령에 대한 불신과 멸시 풍조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 <영남가>는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지방 사족인 박인로가 지냈던 질서 회복에 대한 임무감을 반영한 작품이다. 국가는 임란 중 의병활동 등의 공적을 인정하여 사족의 지위를 보장하였고 그런 사족에게 질서 회복의 임무를 부여했다. 그러므로 <영남가>에서 보여주는 수령의 선정을 강조하는 일은 수령을 비롯한 지방 관리들과의 관계를 원활히 해야 함은 물론, 붕괴된 성리학적 위계 질서를 바로잡아야 하는 위치에 있었던 지방 사족 박인로가 반드시 지향해야 할 바였다.

20) “余居洛……猶聞嶺南亭臺之勝 蔡松潭小有爲第一……若忘小有焉 今適以使行過此 少償疇昔之願”『松潭先生實記』卷之四 補遺, 靜養 林棟.
形勝南州數子家 영남(南州) 빼어난 곳에 몇 사람의 집이 있어
良辰偷暇偶經過 좋은 때 여가를 내어 우연히 방문하였네(중략)
從事官 龍灘 李如璜 作, 『小有亭題詠』.

21) 『小有亭題詠』에는 ‘소유정’ 건립자 채응린의 시에 차운한 89명의 차운시가 실려 있다. 이들은 차운시 말미에 자신의 신분을 기록하여 놓았는데 그 면면은 都事, 府使, 巡察使, 郡守, 縣監, 從事官 등 관직자이거나 손처눌(1553-1634), 광재검(1547-1615), 서사원(1550-1615) 등 영남 학맥의 중심 인물들이다.

<노계가>는 사족으로서의 입지 강화에 대한 의식이 강했던 박인로가 前代 사대부의 가사작품에서와 같은 강호지향을 의도하여 나타난 작품으로 볼 수 있다. 자신이 선택한 공간인 ‘노계곡’의 자연미를 주로 말하지만, 있는 그대로의 자연미를 드러내기보다는 화자와 ‘노계곡’의 자연이 일치되었음을 더 강조하는 의미구조로 형성하였다. 이는 같은 ‘노계곡’에서의 삶을 표현한 詩(七言絶句) 작품과는 사뭇 다른 태도이다.

離群脫俗入山中	무리를 떠나고 세속을 벗어나 산중에 드니
獨釣苔磯細柳風	외로이 이끼 낀 낚시터엔 실바람이 이네
千載非無西伯獵	천년 세월에 西伯의 사냥 없지 않으려면만
可憐虛老一溪翁	가련하다, 헛되이 늙어가는 물가의 늙은이어

<蘆溪卜居>²²⁾

<蘆溪卜居>에서 늙은이의 고독한 내면을 드러낸 것과는 달리, <노계가>에서는 유자로서 지녀야 하는 당위적인 공간지향을 당당하게 드러내었다. 무관으로서 역량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 성리학에 입문하였지만 향안에도 들지 못한 박인로로서는 이러한 의미를 담은 가사작품을 통해 대외적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또 인정받고자 한 것이다.

3.2. 사적 대상과 효용성 활용

『노계선생문집』과 『영양역증』에 모두 수록된 <사계곡>·<누항사>는 『영양역증』본을 원본으로 봐야 한다. 『영양역증』은 1690년(숙종

22) 『蘆溪先生文集』卷之一, 詩 <七言絶句>.

16) 이덕형의 후손 이윤문(1646-1717)이 판각한 박인로의 가집이다. 이덕형 집안은 박인로보다는 상층이었으므로 이윤문의 입장으로는 『영양역증』의 내용을 윤색할 필요도 없었고, 선조와의 교유가 담긴 작품의 내용을 함부로 삭제·변개시킬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윤문은 <발문>에서 자신의 집안과 관련 있는 박인로의 작품을 판각한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밝혀 놓았다.

(중략)세대가 이미 멀어져서 이 노래가 전하지 못하고 후에 없어서 버릴까 두려워서 은근히 애달프게 생각한지 오래였다. 不肖孫 允文이 庚午年(1690) 봄에 영천군수로 제수되었는데, 仁老는 이 곳 사람이라. 그 노래가 아직도 전해지고 그 후손도 또한 살아 있었다. 公事의 여가에 달 밝은 저녁이면 노계의 손자 進善으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게 하여 들었다. 황차 후손이 외람되어 龍津의 산수 사이의 발자취를 뵈오매 서글픈 마음이 더욱 넘치어 눈물이 흘러내리는 지라.(중략)²³⁾

<누항사>는 『영양역증』본에는 ‘漢陰大鑿命作’이라 되어 있고 『노계선생문집』본에는 ‘公從遊漢陰相公 相公問公山居窮苦之狀 公乃述己懷作此曲’²⁴⁾라고 되어 있으며, 두 본 간의 詞의 차이 역시 크다.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누항사>는 『노계선생문집』본으로 보면 이른바 ‘窮苦之狀·世態怨望’을 나타내는 구절과 ‘후물며’를 포함한 전후의 내용이 모두 빠져있다.

그러나 『영양역증』본에는 화자를 窮苦하게 하는 대상이 분명히

23) “世代既遠 此曲無傳 恐其泯沒於後 竊嘗慨然於心者稔矣 不肖孫允文 是歲庚午春 除永川郡守 仁老茲土人也 其曲尚今流傳 世代既遠 公餘月夕 以其孫進善命歌而聽之 悅若後生 叨陪杖履於龍津山水之間 愴懷益激 感淚自零”<跋文>『永陽歷贈』.

24) ‘公이 漢陰 相公을 좇아 놀 때에, 漢陰 相公이 公에게 산촌생활의 곤궁한 형편을 물었다. 이에 公이 자신의 회포를 풀어 이 곡을 지었다.’

나타나며 특히 ‘후물며’ 전후로 물질이 우선 되는 세태로 변해버린 것에 대한 원망과 화자 자신은 물질로써 편법을 쓰지 않겠다는 생각을 드러내었다. 자신을 窮苦하게 만든 대상을 밝혔다는 것은 그에 대한 불만이 있다는 의미이고, 물질이 우선 되는 세태를 원망한 것은 그에 편승하지 못하는 갈등을 지니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영양역증』본 <누항사>로 보면 이러한 갈등을 모두 드러낸 다음에야 지향하는 강호가 된다. 당연한 듯 강호지향을 말하지만 앞부분에서 절절히 토로한 부정적인 상황으로 인해 편하지 않은 인상을 준다.

이처럼 비록 뒷부분에서 강호지향을 하지만, 앞부분에서 많은 구절을 할애하여 세태와 窮苦하게 만든 대상에 대한 원망의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창작을 청한 이덕형 개인을 聽者로 상정하였기에 가능한 일이다. 창작을 청한 이덕형에게 ‘누항’의 가난한 상황과 그것에 대한 박인으로 자신의 심경을 드러낸 것이다. 하지만 『노계선생문집』간행자들은 의미구조를 무너뜨려가면서 까지 이러한 구절들을 삭제함으로써 공적 효용이 가능한 <누항사>로 만들고자 하였다.

<상사곡>은 <권주가>와 함께 『영양역증』본으로만 전한다. <상사곡> 앞에는 ‘尙州俞鑿命作’, <권주가>에는 ‘善山俞鑿命作’이라고 되어 있다. <상사곡> 창작을 ‘명’한 ‘상주영감’은 이덕형의 맏아들인 이여규(1581-1635)이고, <권주가> 창작을 ‘명’한 ‘선산영감’은 이덕형의 셋째 아들 이여황(1590-1632)이다. 이여규와 이여황은 같은 해인 1632년 각각 상주목사와 선산부사를 역임하고 있었다. 따라서 <상사곡>·<권주가>의 창작 시기도 이때로 볼 수 있다. <권주가>에서 “偶然히 만나니 二難도 7쌈꼬야 二難이 7주니 四美도 7다마논”라고 표현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1632년 박인로는 가까이 종용했던 이덕형이 졸하고(1613년) 한참 후에 이덕형의 두 아들을 만났고 그 일은 <상사곡>·<권주가>의 창작 배경이 되었다.

<상사곡>에는 화자가 남성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怨望의 말조차 할 수 없는 절대적인 존재로 남이 그려져 있다. 이에 더해 박인로가 시 작품에서 임금에 대한 마음을 나타낼 때 ‘서쪽’을 자주 언급한 것처럼 <상사곡>에서도 ‘東西의 외오두고’라고 하여서 <상사곡>은 연주지사임을 알 수 있게 한다.²⁵⁾ ‘命作’이라는 기록을 감안하면, 선친과 인연이 깊으며 노래를 잘 짓고 부른다고 알려진 박인로를 만난 이여규는 선친이 그랬듯 ‘相思’를 담은 작품을 청했고, 당시 사대부들이 추구하는 ‘相思’의 의미를 잘 아는 박인로는 그것을 작품에 곡진히 담아내었다.

<권주가> 역시 이여규·여황 형제를 만난 자리에서 취흥을 돋우기 위해 이여황이 ‘권주(가)’를 청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부응하여 박인로는 인간 삶의 일회성을 상기시키는 정도의 권주 분위기 조성에 머물지 않고, 죽고 난 뒤의 상황과 대조하여 술을 권하고 취흥을 즐기는 일의 가치를 강조하는 내용으로 완성하였다.

이처럼 『영양역중』본 <누항사>·<상사곡>·<권주가>는 박인로와 이덕형, 박인로와 이여규·여황 형제의 개인적 친분이 계기가 되어 창작한 작품이다. 즉 주제를 정해 창작을 청하고, 그것에 부응하는 내용을 담아 창작하였기 때문에 이들 작품은 처음부터 개인과 개인 즉 사적 효용의 범위를 상정하고 창작한 작품이다. 하지만 『노계선생문집』에서는 “儒林傳”과 같은 문집의 위상에 맞지 않는 내용을 배제해야 한다는 간행자들의 의도를 거치면서 <누항사> 본래의 모습이 훼손되거나, <상사곡>과 <권주가>는 ‘남은 시문’으로 분류되어 아예 실리지도 않았다.²⁶⁾

25) 報國初心竟歸空 보국하려던 마음이 허사로 돌아가니
西望涕淚而已矣 서쪽을 바라보며 눈물 흘릴 뿐이로다
『蘆溪先生文集』卷之一 七言古詩 <安分吟>
‘서울’은 흔히 ‘북쪽’이기도 하지만 박인로가 살았던 영천에 비해 ‘서쪽’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東西 외오두고’란 표현은 영천과 서울로 헤어져 지내는 화자와 임금으로 代替할 수 있다.

26) “第其遺芬醜腹貯在巾帟者不無三寫鳥焉之誤(그 남은 시문을 상자에 넣어 둔 것은

4. 나오는 말

본고에서는 박인로의 가사창작 방식의 일면을 구명하기 위해 ‘흐믓며/흐믓며’의 활용을 중심으로 작품의 의미구조를 살펴보고 그것이 지니는 의미를 알아보았다. 박인로는 <사제곡>·<독락당>·<상사곡>에서와 같이 앞의 내용을 전제로 뒷 내용의 실증성을 강조하기 위해, <소유정가>·<영남가>·<노계가>에서와 같이 앞의 내용에 전주어 뒤의 내용이 우위임을 강조하기 위해, <선상탄>·<누항사>·<권주가>에서와 같이 앞의 내용을 전제로 하여 뒤의 내용에 당위성을 부여하기 위해 ‘흐믓며/흐믓며’를 활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물론 ‘흐믓며/흐믓며’의 활용만으로 이러한 의미가 완성되었다는 말은 아니다. 하지만 ‘흐믓며/흐믓며’의 활용은 이러한 의미를 이루게 하는 중요한 기능으로 작용하며, 이는 주제를 보다 분명히 드러내어 전달하기 위한 박인로의 창작방식이었다. 박인로는 이러한 창작방식을 활용함으로써 공공의 대상이나 개인적 친분이 있는 대상을 상정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바의 효용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박인로는 가사 창작의 역량을 지닌 작가였으며 그의 가사작품은 즉흥적 산물이 아니라 의도한 창작방식에 따른 결과물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그리고 박인로는 ‘명·칭’자가 원하는 작품의 주제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이와 같은 창작방식을 활용하였다는 것도 알 수 있게 한다.

[ABSTRACT]

The Writing Style and Its Meaning of Gasa Works
of Park In-Ro

- focused on the usage of 'hamulmye' -

Kim, Sung-eun(Woosong University)

Park In-Ro (1561-1642) wrote eleven Gasa works and he can be regarded as the most remarkable Gasa writer in the middle age of Joseon dynasty in terms of the number of works. As there are so many works, studies on his works have been conducted from diverse points of views. However, it does not appear that there is any study which pays attention on and recognizes his writing style.

Park In-Ro utilized the word 'hamulmyez(함물며/함뭉며)' with different meanings in his works; in "Sajegok", "Dongnakdang", and "Sangsagok" he used the word to accentuate corroborative nature of contents following 'hamulmye' with the precondition proposed in contents before the word, in "Soyujeongga", "Yeongnamga", and "Nogyega" he used it to emphasize the superiority of the latter contents from the comparison between former and latter contents, and in "Seonsangtan", "Nuhangsa", and "Gweonjuga" he used it to edue latter contents with justification assuming the assurance of former contents.

It does not mean that the utilization of 'hamulmye' only completed such semantic structure, but it was Park In-Ro's sole

writing style to better expose the theme of his works. By utilizing such writing style, Park In-Ro tried to expose what he wanted to convey to private and public audiences more effectively.

From this study we can conclude that Park In-Ro was not just a singer – “Seongaja” but a writer who was endowed with creative talent, and his Gasa works were not impromptu amusements but the results of intentional creative activity. He also utilized such writing style to reflect the requirements of orderers and listeners sufficiently in his works.

Key words: Park In-Ro, Gasa, Writing Style, Hamulmyeo, Utilization

[참고문헌]

□ 기본자료

- 김문기, 『國譯 蘆溪集』, 역락, 1999.
김석배, 『庚午本 蘆溪歌集』, 구미문화원, 2006.
김창규, 『蘆溪詩評釋』, 박이정, 2008.

□ 단행본

- 김일렬, 『문학의 본질』, 새문사, 2006.
나찬연, 『국어문법의 이해』, 제이앤씨, 2007.
서정수, 『한국어의 부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조세형, 『가사의 언어와 의식』, 보고서, 2009.

□ 논문

- 김선영, 「현대 국어의 접속부사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김성은, 「노계 <권주가>에 나타나는 특성과 의미」, 『한국시가연구』 28, 한국시가학회, 2010, 209-237면.
박지숙, 「국어 의문형 서법 부사 연구」, 동아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이종문, 「노계 <영남가>의 찬양 대상 인물에 대한 고찰」, 『어문논집』 59, 민족어문학회, 2009, 289-307면.
이주영, 「강호가사에 나타난 逍遙의 양상과 교육적 의의-강호시조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고전문학과교육』 23,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2, 71-98면.
조애숙, 「韓日語副詞 ‘まして’와 ‘하물며’의 대조연구」, 『일본문화학보』 59, 한국일본문화학회, 2013, 101-121면.